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0(4), 81~94, 2022. 11. https://doi.org/10.17279/jkagee.2022.30.4.81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척도를 이용한 한일 학습자의 지리학습스타일 비교

양 자 연*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Learners "Geography Learning Styles" Using "Geography Learning Styles" of Sense and Perception Scale

Ja Yeon Yang*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학습자를 지리학습자 정보 중 하나인 지리학습스타일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 및 배경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지리교육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양국 비교 연구로는 교육과정 및 교재, 특히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척도를 이용하여 양국의 고등학생(n=753)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국 고등학생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지표의 평균은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가 1순위, 시각자료 활동 선호가 2순위, 그리기 활동 선호가 3순위로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였다. 또한 3가지 지표에 대한 양국 고등학생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는 학습자의 지리학습 경험에 영향을 주는 국가 교육과정상에서의 지리교과의 구조, 이러한 교육과정 기반으로 제작된 교과서의 학습활동에서의 차이 등 을 들 수 있다.

주요어: 지리 학습자, 한일 비교, 지리학습스타일, 척도, 교육과정과 교재

Abstract: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e Korean and Japanese learners through one of the geography learner information, "geographic learning style",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for this comparison. Until now,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 and Japan in geography education have mainly been conducted to reveal characteristics centred on curriculum and resources, mainly textbook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Korean and Japanese upper secondary school students (n=753) using the sensory and perceptual "geographic learning style" scale developed for Korean and Japanese upper secondary school students. As a result, the average ranking of the indicators of the three elements of upper secondary school students' sensory and perceptual geographic learning styles in both countries was consistent with the preference for first-order preference of Aural/Oral activities in peer-group, second-order preference for Visual materials, and third-order preference for Drawing. In addition,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upp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both countries for the three indicators. We attribute these results to the structure of geography subjects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e differences in the number and content of learning activities in the textbooks produced, which affect learners' geographical learning experiences.

Key words: geography learners, comparative studies between Korea and Japan, Geography Learning Styles, scales, curriculum and resources

* 츠쿠바대학교 인간종합과학연구과 박사과정(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Comprehensive Human Sciences, University of Tsukuba), homogeographicus@gmail.com

www.kci.go.kr

I. 서론

인접국인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조철기, 2008, 656). 지리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는 인접국인 일본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한 이해가 이루어져 왔다. 지리교육에 있어서 양국을 비교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국제적인 스케일에서 우리나라의 지리교육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통해 양국 지리교육의 특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지리교육의 국제적인 스케일에서의 비교 연구는 국제지리연합 지리교육분과(The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Commission on Geographical Education, 이하, IGU-CGE)가 지리교육을 위한 연구의 역할, 성격과 가치 및 초점 그리고 지원을 위하여 2015년 선언한 『International Declaration on Research in Geography Education(이하, 지리교육연구 국제 헌장)』에서도 지리교육의 발전을 위한 지리교육연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리교육 연구의 맥락과 과제'의 부분에서, 지리교육에 있어서 국제 협력 및 비교 분석 연구는 지리교육 연구의 커리큘럼, 교수, 학습자의 참여, 방법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IGU-CGE, 2015)는 의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IGU-CGE는 이 헌장을 통해 지리교육에서 국제 협력 및 비교 분석 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적인 국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보다 국가 및 국제적으로 지리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선언, 장려하고 있다. 즉, 지리교육에 있어서 국제적인 스케일에서 각 국가의 지리교육에 대해 공유하는 것은 보다 질 좋은 지리교육에 대해 논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IGU-CGE, 2016).

나아가, 『지리교육연구 국제 헌장』(IGU-CGE, 2015)에서는 지리교육의 연구자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주제로서 첫째, 학습자(Learners), 둘째, 교육자(Educators), 셋째, 교육과정 및 자료(Curriculum and resources), 넷째, 교수법(Pedagogy), 다섯째, 정책 및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 맥락(Policy, influences and historical contexts), 여섯째, 연구의 실천과 환경(Research practices and places)의 6가지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도 지리교육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학습자'이다(조성욱, 2006, 136).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육 연구는 각각의 과제와 이유로 교육과정, 교과서를 통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국의 지리교육 연구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대상이 되는, 지리 학습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지리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행 연구들에서 축적되어 온 양국의 지리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지리학습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의 지리교육의 이해를 보완할 수 있다면, 선행 연구들에서 축적되어 온 양국의 지리교육의 이해를 보다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리 학습자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는 국제적인 스케일에서 지리 학습자의 특징을 논의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각 지역 및 국가 상호간의 지리교육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학습자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현재 지리교육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정당화하고 또한 지리교육의 개선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학습스타일(Healey and Jenkins, 2000)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습스타일(Learning styles)은 학습자가 학습을 할 때 지속적으로 선호하여 선택하는 배움의 방법 또는 양식(辰野, 1989)로 정의된다. 지리학습자의 학습스타일은 지리학습자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자 정보 중 하나이자,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수 및 학습 선호도에 대한 지표를 제고하는 자료를 제공하며, 학습자에게 부여된 지역 커리큘럼 설계의 결과를 제공한다(Felder, 1993). 그렇기에 지리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가, 발달단계 간에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Healey and Jenkins, 2000; Healey *et al.*,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은 여전히 불분명하다(Healey and Jenkins, 2000). 즉, 지리학습자의 학습스타일은 학습자로부터 생성된 각기 다른 지역 및 국가의 교수학습방법 및 커리큘럼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 중심의 지리교육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학습자를 지리학습자 정보 중 하나인 "지리학습스타일(Geography learning

www.kci.go.kr

styles)"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 및 배경을 고찰하는데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리교육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양국에 있어서 어떠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이해되어 왔는지 파악한다. 둘째, 양국의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비교 연구의 가능성으로서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이라는 학습자 정보에 대해서 검토한다. 셋째, 양국의 지리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을 조사한다. 넷째, 조사한 양국의 지리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결과를 고찰하기 위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지리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특징을 밝힌다.

II. 지리교육에서의 한일 비교 연구

1. 한일 지리교육의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의 지리교육을 소재로 한 학술 논문은 국내와 일본의 학술지를 통해 다수 보고되어왔다. 이 중에서 양국의 지리교육을 비교하는 방법을 채택한 연구들은 양국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각각의 나라의 지리교육을 단독으로 분석하였을 때와는 또 다른 각국의 지리교육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양국의 지리교육의 이해를 심화시켜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지리교육에 있어서 두 나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연구된 학술 논문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양국의 학술지에

표 1. 지리교육을 다룬 한일 비교 연구

연구	양국의 비교 대상 및 연구 목적	IGU-CGE(2015)의 6가지 연구 주제	비고
서찬기·이상선(1995)	지리교과서에서의 지리학습내용의 중요개념	교육과정 및 자료	대만 포함
양원택(1996)	고교 교과서의 국제이해 관련 내용	교육과정 및 자료	
송인주(2000)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 및 차이점	교육과정 및 자료	
이종일·정호범·고영호(2004)	초등 사회과 교과서 구성체제	교육과정 및 자료	미국, 프랑스 포함
주경식(2006)	예비교사들의 세계지리 지식	학습자, 교육자	
김재춘·박소영(2007)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방식	교육과정 및 자료	미국, 영국 포함
박용조·정호범·신범식(2007)	초등 사회과 수업	교수법	
諏訪哲郎(2008)	세계 지리 교육의 비교를 통한 문제점 파악	교육과정 및 자료	중국 포함
金玹辰·梁炳逸(2009)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지리적 인식	학습자	일본학회지
남경희(2009)	중학교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및 자료	
조철기(2009)	고교 지리교과서의 텍스트 및 이미지 담론	교육과정 및 자료	
이하나·조철기(2011)	중등 지리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영토교육	교육과정 및 자료	
천호성(2011)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거시적 특징	교육과정 및 자료	
김민정·이자원(2013)	지리 교과서의 국토교육 내용	교육과정 및 자료	
윤옥경(2013)	지도그리기 대회	정책 및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 맥락	국제대회 포함
한춘희·이정희(2013)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교육과정 및 자료	
주웅영·정용교(2014)	초등 사회과 교실수업	정책 및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 맥락, 교수법	
양병일(2016)	저출산·고령화를 다루는 초, 중, 고등학교 사회과(지리영역) 교과서	교육과정 및 자료	
사희영(2017)	태평양전쟁 말기의 지리교과서	정책 및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 맥락, 교육과정 및 자료	
심광택·동옥지·김현진(2019)	고교 지리교육과정 개발 동향의 특징	정책 및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 맥락, 교육과정 및 자료	중국 포함
심정보(2020)	예비교사들의 독도 인식	학습자, 교육자	
장양이(2021)	중학교 사회과 지리 영역의 도시 내용	교육과정 및 자료	

출처: 필자 작성

www.kci.go.kr

게재된 논문을 수집, 파악하였다(표 1).

그 결과, 지리교육에 있어서 양국을 비교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은 총 22편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들을『지리교육연구 국제 헌장』(IGU-CGE, 2015)의 6가지 연구 주제를 기준으로 분류 한 결과, 2가지 이상의 주제에 해당하는 논문 5편을 포함한 22편의 27개의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연구 주제는 '교육과정 및 자료(16편)'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는 '정책 및 영향력 그리고 역사적 맥락(4편)', '학습자(3편), '교육자(2편)', '교수법(2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교육과정 및 교재'를 사용하는 학습자 및 교육자에 대한 연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양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한 3편의 논문 중에서 고등학생을 다룬 연구는 1편에 그치며, 이 역시 대학생과 함께 연구됨으로써 양국의 고등학생의 특징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리교육에서의 양국의 비교 연구 주제에 있어서 교육과정 및 자료의 결과 및 성과와 더불어 보다 양국의 지리교육의 특징 및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던 양국의 학습자 비교 연구를 통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특징과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2. 지리학습스타일을 통한 한일 학습자 비교 연구의 가능성

기존의 지리교육연구에서 이루어진 학습자 접근 중에서, 학습스타일 연구가 포함된 '지식 및 학습자의 분류에 의한 접근'은 지리 학습자 특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지리교육의 특징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학습자 접근 방법이다(조성욱, 2006). 학습스타일은 학습하는 내용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스타일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Kolb and Kolb, 2013)을 갖고 있기에 지리를 학습하는 학습자가 갖는 특유의 학습스타일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지리학습자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학습스타일은 앞서 언급한 학습자 이해 그 자체와 더불어, 학습자로부터 생성되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선호 및 지역 커리큘럼 설계의 결과물로서도 이해될 수 있다(Felder, 1993). 이러한 학습자의 학습스타일에서 생성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이나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지리교육의 교수학습방법 및 커리큘럼 설계 및 정당화,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Healey and Jenkins, 2000).

이러한 학습자의 학습스타일 이해를 통한 거주국가의 지리 학습을 비교한 연구로는 Healey *et al.*(2005)을 언급할 수 있다. Healey *et al.*(2005)에서는 영국(잉글랜드), 미국, 호주, 뉴질랜드의 지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932명을 대상으로 교과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학습스타일인 콜브의 학습스타일 척도(Kolb's Learning Style Inventory)를 이용하여 지리 학습자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영어권 4개 국가의 지리학 전공 대학생들의 학습스타일은 거주국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교과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학습스타일 척도를 통해 고등교육에서의 지리학 전공자들을 이해함으로써 각 국가 및 지역의 고등교육수준에서의 지리학습자의 경향성 및 특징을 발현했다. 그러나 Healey *et al.*(2005)와 같은 방법으로, 지리학 전공자가 아닌 초·중등교육의 지리학습자를 교과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학습스타일 척도를 이용하여 이해했을 경우, 그 학습스타일의 결과가 반드시 지리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학습스타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개념으로, 학습자가 지리를 학습할 때 드러내는 학습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리학습스타일"을 들 수 있다. 지리학습스타일이란 "학습자가 지리를 학습을 할 때 지속적으로 선호하여 선택하는 배움의 방법 또는 양식"(양자연, 2020, 40)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지리학습스타일은 학습스타일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요소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척도(sensory and perceptual geography learning style scale)"는 지리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언급되는 사적 지리(private geography)(Fien, 1983)를 형성하는 개념이자, 학습자정보 중 하나인 학습스타일의 구성요소(김은정, 2000)로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감각과 지각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학습자의 지리학습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척도이다(표 2).

이 척도는 개발단계에서부터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척도 개발의 결과, 시각 자료 활동 선호(preference of Visual materials), 말하기 듣기 활동 선호(preference of Aural/Oral activities in peer group), 그리기 활동 선호(preference of Drawing)의 3가지

www.kci.go.kr

표 2.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척도

지표	문 항
시각 자료 활동 선호	나는 여름 계절풍과 겨울 계절풍을 나타낸 두 일기도가 주어졌을 때, 이를 비교하면서 각각 알맞은 계절의 일기도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나는 각 시도별 인구의 변화를 다양한 그래프를 통해 이해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나는 우리나라의 인구 피라미드의 시대별 변화를 보고 이해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나는 북부지방, 남부지방의 가옥형태(예를 들면, 관북형, 제주도형 등)를 구조도나 모식도들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나는 '충주'와 '청주'의 위치가 헷갈릴 때, 지리부도를 통해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는 데 자신이 있다.
	나는 처음 보는 장소를 찍은 사진을 보고 그 곳이 어디인지 맞추거나 유추하는 데에 자신이 있다.
말하기 듣기 활동 선호	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을 조사할 때,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정리 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의 인구 및 기능 집중에 따른 문제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모둠별로 토론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국내 교통수단(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별 여객, 화물 수송의 특징에 대해서,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 이해가 잘된다.
	나는 친구들과 모둠별로 환경문제(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과일의 재배 지역의 북상 등)에 관한내용을 찬/반으로 나뉘어 토론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그리기 활동 선호	나는 교과서나 지리부도 및 워크북 등에 지형의 단면도를 직접 그려보거나, 만들어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해안사구를 답사하게 된다면, 단면도를 그리거나 전체적인 모습을 스케치하는 것을 해보고 싶다.
	나는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에 대해서 학습할 때, 손으로 직접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과 기온을 이해할 때, 통계자료를 통해 강수량 그래프나 기온그래프를 직접 그려가면서 이해하는 것을 좋아한다.

출처: 양자연, 2020, 44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1] 이처럼 척도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양국의 지리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척도는 양국의 지리학습자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통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Ⅲ. 조사내용 및 방법

1. 조사 개요

한일 양국 학습자의 지리학습스타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사를 진행하였다.[2]

조사 대상자로는 학교에서 지리를 이수하고 있거나, 앞선 학년에서 지리를 배운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과목으로서 "지리"라는 과목이 등장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양국은 중학교 사회과 안에서 지리를 배운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일본의 중학교에서 지리내용은 '중학교 사회 -지리적 분야-'와 같이 지리, 역사, 공민(公民, 한국의 일반사회에 해당)으로 나누어져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제작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중학교에서 지리내용은 교과서상에서 지리와 일반사회를 구별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양국 공통적으로 교과명에서 '지리'가 등장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으로는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척도(표 2)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 6단계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조사 시기는 한국 학습자는 2020년 2월에서 5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일본 학습자는 2019년 11~12월의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답변을 얻은 862명 중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분석대상이 된 질문지는 한국의 2개 고교의 학습자의 146건, 일본의 3개고교의 학습자의 답변 607건 총 753건(회수율 77.2%)이었다. 답변의 통계처리에는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을 사용하였다.

2. 분석 방법

먼저, 양국의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www.kci.go.kr

의 패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자들로부터 회수된 척도 문항의 답변을 3가지 지표(시각 자료 활동 선호,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 그리기 활동 선호)별로 수집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 리커트 척도 6단계를 사용하였기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1점)'부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6점)'의 답변의 중앙치는 3.5점이다. 이에 각 지표별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 점수를 중앙치 3.50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각 지표에 대해 선호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시각자료 활동 선호에 대한 문항 6개에 대해서 답변한 평균이 4.33일 경우, 시각자료 활동 지표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양국의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지표별 차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자들이 문항에 대해 답변한 점수의 평균 비교를 진행하였다.

IV. 한일 고등학생의 지리학습스타일의 특징

1. 한일 고등학생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1) 한일 고등학생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패턴

본 조사의 결과, 한일 양국 지리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패턴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한국의 지리학습자 중 1가지 이상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을 선호하는 학습자는 84.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지리학습자 중 1가지 지표를 선호하는 학습자는 19.9%, 2가지 지표를 선호하는 학습자는 28.8%, 3가지 지표 모두 선호하는 학습자는 35.6%의 결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지리학습자 중 1가지 이상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을 선호하는 학습자는 42.2%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지리학습자 중 1가지 지표를 선호하는 학습자는 15.7%, 2가지 지표를 선호하는 학습자는 14.0%, 3가지 지표 모두 선호하는 학습자는 12.5%의 결과로 나타났다.

양국 지리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공통점으로는 1개 지표를 선호하는 학습자들의 선호지표의 1순위가 말하기듣기 활동선호, 2순위가 시각자료 활동 선호, 마지막 3순위가 그리기 활동 선호로 나타남으로써, 선호하는 지표의 순서가 같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개 지표를 선호하는 학습자들 역시, 시각자료 활동 선호와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의 조합이 1순위,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와 그리기 활동 선호의 조합이 2순위, 시각자료 활동 선호와 그리기 활동 선호가 3순위로 나타났다. 즉, 양국의 지리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 및 이와 함께 구성된 지리학습스타일이 시각자료 활동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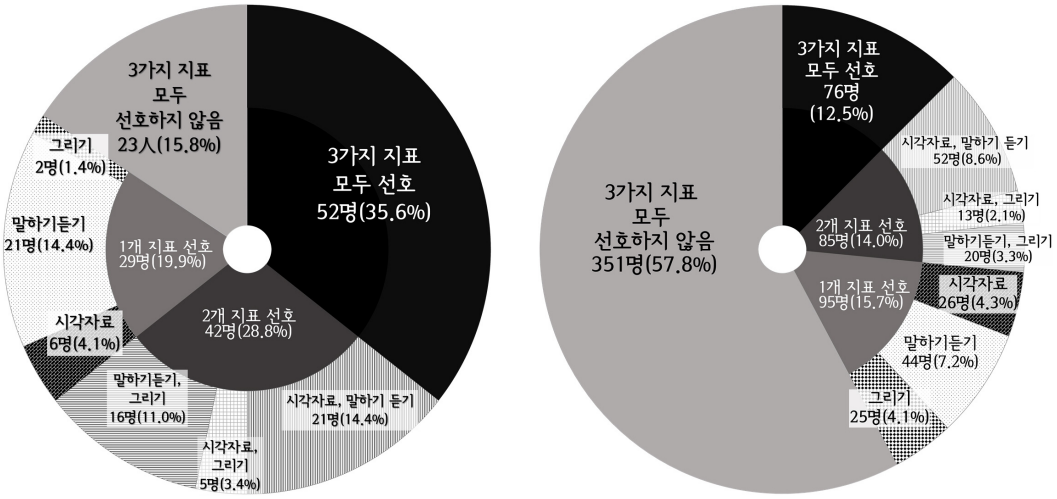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패턴(왼쪽: 한국, 오른쪽: 일본)
출처: 필자 작성

www.kci.go.kr

와 그리기 활동 보다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3가지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선호하는 학습자의 비율을 들 수 있다. 즉, 1가지 지표 이상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을 선호하는 한국의 지리학습자의 비율(84.2%)과, 일본의 지리학습자의 비율(42.2%)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양국의 차이를 보다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서 3가지 지표별 분석을 진행하였다.

2) 한일 고등학생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비교

한국과 일본의 지리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요소의 지표별 평균은 그림 2와 같다.

양국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지표별 평균을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고등학생은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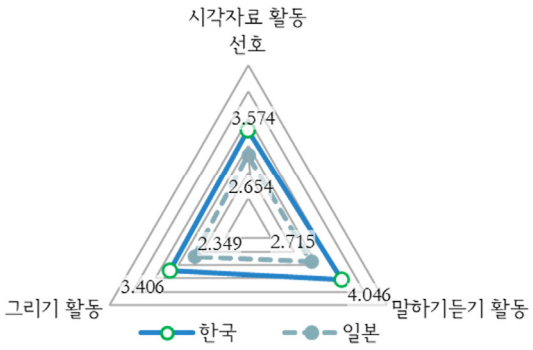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비교 결과
출처: 필자 작성

듣기 활동 선호의 평균이 4.046(SD=1.159), 시각자료 활동 선호의 평균이 3.574(SD=1.047), 그리기 활동 선호의 평균이 3.406(SD=1.2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고등학생 역시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의 평균이 2.715(SD=1.298), 시각자료 활동 선호의 평균이 2.654(SD=1.184), 그리기 활동 선호의 평균이 2.349(SD=1.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양국의 고등학생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중에서 말하기듣기 활동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2순위가 시각자료 활동선호, 3순위가 그리기 활동선호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그림 1과 같이 양국의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지표별 평균에서 나타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양국의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지표별로 정규성 검정을 진행하였다(표 3). 그 결과, 3가지 지표에 대한 정규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을 기각함으로써 정규분포가 인정되지 않는 데이터가 존재하였기에 비모수 독립표본 Mann-Whitney의 U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가지 지표 모두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 사이에,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표 4). 평균 순위와 순위 합에서는 한국의 고등학생이 일본의 고등학생 보다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지표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가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를 구체적인 수치로서 알 수 있는 효과크기(김민성, 2011)의 크기가 큰 순위로는 말하기 듣기 활동 선호 요소(r=-0.374), 그리기 활동 선호 요소(r=-0.318), 시각 자료 활동 선호 요소

표 3. 국가별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데이터의 정규성 검정

지표	국가(n)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	자유도	CTT 유의확률	통계	자유도	CTT 유의확률
시각 자료 활동 선호	한국146)	0.070	146	0.074	0.983	146	0.070
	일본(607)	0.108	607	0.000	0.951	607	0.000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	한국(146)	0.101	146	0.001	0.963	146	0.001
	일본(607)	0.108	607	0.000	0.942	607	0.000
그리기 활동 선호	한국(146)	0.057	146	0.200*	0.980	146	0.035
	일본(607)	0.133	607	0.000	0.918	607	0.000

*. 이것은 참 유의성의 하한입니다.
a. Lilliefors 유의확률 수정
출처: 필자 작성

www.kci.go.kr

표 4. 국가별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Mann-Whitney의 U 검정

지표	국가(n)	평균 순위	순위합	Mann-Whitney의 U	Z	r
시각 자료 활동 선호	한국146)	510.928	74595.500	24757.500	-8.294***	-0.302
	일본(607)	344.787	209285.500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	한국(146)	542.586	79217.500	20135.500	-10.267***	-0.374
	일본(607)	337.172	204663.500			
그리기 활동 선호	한국(146)	517.548	75562.000	23791.000	-8.734***	-0.318
	일본(607)	343.194	208319.000			

Z: 표준화된 검정 통계량, ***p<.001, r: 비모수 검정 효과크기
출처: 필자 작성

(r=-0.3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 지표 모두 중간정도의 차이를 보였다.[3)]

본 조사의 결과 역시,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이 밝혀졌다. 즉, 지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교과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학습스타일도, 고등학생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도 나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 한일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차이와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스타일은 교수학습방법 및 지역의 커리큘럼 설계의 결과를 의미한다(Felder, 1983). 나아가, 한일 양국 비교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주제인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포함한) 교재'에 관한 연구에서는, 양국의 사회과는 모두 미국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 국가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개발을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한춘희·이정희, 2013), 교과서의 목차가 유사하다는 점(주웅영·정용교, 2014),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형식적인 틀에서는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하나·조철기, 2011)등의 공통점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조사의 결과, 공통점을 갖는 양국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포함한) 교재'로 학습하는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통점을 갖는 양국의 비교연구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통해 유의미한 차이의 이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1) 교육과정과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본 조사 대상인 학습자들에게 적용된 교육과정은 한국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2018)이, 일본의 경우,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平成21年告示)(이하, 2009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文部科学省, 2009)이다. 먼저 두 교육과정에 포함된 고등학교 지리 과목이자, 양국의 조사 대상자인 고등학생들이 수강하고 있거나 수강한 적이 있는 과목인 "한국지리"와 "地理A"에 초점을 맞춰 그 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표 5).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 과목에서는 각각의 단원(내용)에 대해서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리교사가 학습내용의 지도방법을 구상에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핵심역량(Key competency)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지리학습을 통해 '대인관계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정보(처리)활용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시민의식(지역/국가/글로벌)'의 6가지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직전의 교육과정 개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도입되었던 핵심역량을 보다 학교 급별로 초등과 중등에 걸쳐 그 의미를 보다 상세하게 나아가 위계화 하여, 목표, 내용, 교수 학습방법, 평가 등에 제시하고 있다(김현미 외, 2015).

반면, 2009년 개정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地理A"과목은 내용항목(contents)을 중심으로 지리적 지식과 기능이 제시되어 있다(井田, 2018). 즉, '내용'이 먼저 제

www.kci.go.kr

표 5.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중 과목 “한국지리”와 일본의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중 과목 “地理A”의 구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일반 선택 **한국지리** 1. 성격 2. 목표 3. 내용 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 체계 나. 성취기준 (1) 국토 인식과 지리정보 (가) 학습 요소 (나) 성취기준 해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2)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 (가)(나)(다)(라) 동일 (3)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 (가)(나)(다)(라) (4)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 (가)(나)(다)(라) (5) 생산과 소비의 공간 - (가)(나)(다)(라) (6)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 (가)(나)(다)(라) (7)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 - (가)(나)(다)(라)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나. 평가 방향	제1장 총칙 제2장 각 학과에 공통된 각 교과 … 제2절 지리역사 제1관 목표 제2관 각 과목 … 제5 **지리A** 1. 목표 2. 내용 (1) 현대세계의 특색과 과제의 지리적 고찰 (2) 생활권 과제의 지리적 고찰 3. 내용을 다루는 법 (1) (내용 전체) (2) (각각 내용의 (1), (2)에 해당) 제3관 각 과목에 해당하는 지도계획 작성과 내용을 다루는 법 … 제3장 주로 전문 학과에서 개설되는 각 교과 (13개 교과) 제4장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제5장 특별활동 부칙

출처: 교육부(2018), 文部科学省(2009)을 참고로 필자 작성

시된 후, ‘내용을 다루는 법’을 통해 내용항목의 지리적 지식 및 기능에 관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해서 언급되는 방식을 갖는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는 먼저, ‘내용항목 전체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지도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사실과 현상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해석을 더하여 논술하거나, 토론을 하는 등의 활동’(文部科学省,2009)등을 언급하고 있다. 뒤이어, 각 내용항목에 대해서 ‘(1) 현대세계의 특색과 과제의 지리적 고찰’에서의 주제도’, ‘(2) 생활권 과제의 지리적 고찰’에서는 지도를 읽거나 만드는 작업적, 체험적 학습을 통한 지도표현, 답사 등을 통해 지식 및 기능을 학습’(文部科学省, 2009)하도록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9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지리적 지식 및 기능에 관한 내용항목을 먼저 제시한 후, 각각의 내용항목 따라 내용항목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이 따로따로 언급되는 구조를 띄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지리”과목의 구조와 비교 해보았을 때, 제시된 지리적 지식 및 기능과 관련된 내용항목과 이와 관련된 교수학습방법들이 어떻게 각 단원 안에서 연결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내용항목과 교수학습방법을 참고하여 지리 학습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준만을 지시하고 있음으로써, 교사의 교재연구에 맡기는 구조를 갖는다.

즉, 한국의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을 중핵으로 단원별로 학습내용인 지리적 지식과 기능에 대한 내용과 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가 함께 제시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구조는 국가 전체적으로 학습해야할 지리적 지식 및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교과 전체적으로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지리적 지식 및 기능의 학습항목이나 교수학습방법, 평가를 기준으로는 그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를 갖는다.

반면, 일본의 교육과정은 내용항목을 통해 과목에서 다루는 지리적 지식 및 기능을 파악한 다음, 각각의 내용항목을 학습하는데 유효한 지리적 지식 및 기능을 학습

www.kci.go.kr

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내용항목에 대한 지리적 지식 및 기능과 그 내용항목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이 따로따로 제시되어 이 두 가지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지리수업을 구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4] 이러한 2009 학습지도요령의 구조는 지리교사에게 최소한의 내용항목과 교수학습방법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리 교사에게 자유로운 교재 연구의 자율성을 부여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달리 '지리역사과'로 구성되어 있는 일본의 교원면허구조상, 지리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地理A"과목을 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학습지도요령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중심으로 지리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지리수업을 준비한다면 지리전공의 교사의 교재연구 및 수업준비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양국의 지리 교육과정은 지리교사에게 지리적 지식에 대한 학습내용과 이와 관련한 지리적 기능에 대한 교수학습방법을 제시하는 구조에 있어서 그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지리수업을 받는 양국의 학습자의 지리 학습 경험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교과서와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앞서 살펴본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지리 학습을 하는 기본 교재 및 교구인 교과서 제작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교 지리과목의 교과서는 검인정제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지표, 즉 시각 자료 활동 선호,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 그리기 활동 선호와 관련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였다(표 6).

분석대상이 된 교과서는 앞선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한국지리"와 "地理A"의 교과서 각각 3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지리"와 "地理A" 교과서 각각 3종을 분석한 결과, 먼저, 총 활동 수에서 있어서 "한국지리" 3종 평균 186.7개, "地理A" 3종 평균 60.7개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페이지 수에 있어서는 "한국지리"교과서는 180~218페이지로 평균 199.3페이지, "地理A" 교과서는 178~198페이지로 평균 198.3페이지의 차이를 갖는 것에 비하면, 전체 학습활동의 수의 차이는 페이지수의 차이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학습활동의 수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학습활동은 말하기듣기 선호 활동과 관련된 학습활동임을 알 수 있다. 시각 자료 활동 선호와 그리기 활동 선호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으나, 양국의 지리교과서 3사의 합계를 비교해보면 말하기듣기 활동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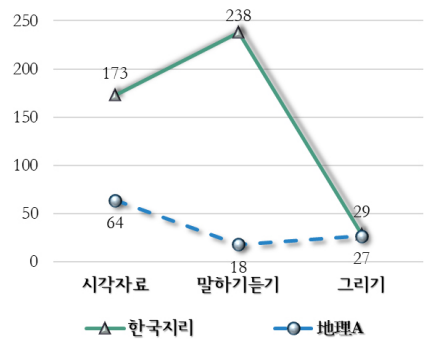

그림 3.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한 '한국지리'와 '地理A' 각 교과서 3사의 학습활동 합계
출처: 필자 작성

표 6.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한 '한국지리'와 '地理A' 교과서의 학습활동 수

과목별 교과서 / 지표	한국지리				地理A			
	A 교과서	B 교과서	C 교과서	3사 합계 (평균)	D 교과서	E교과서	F 교과서	3사 합계 (평균)
시각 자료 활동 선호	60	75	38	173(57.7)	15	9	40	64(21.3)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	94	108	36	238(79.3)	3	0	15	18(6.0)
그리기 활동 선호	10	9	10	29(9.7)	10	6	11	27(9.0)
기타	85	14	21	120(40.0)	31	2	30	63(21.0)
총 활동	249	206	105	560(186.7)	59	17	106	182(60.7)
총 페이지 수	180	200	218	598(199.3)	192	178	198	568(189.3)

출처: 필자 작성

www.kci.go.kr

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이처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 말하기듣기 학습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지리” 교과서 3종의 경우, 말하기듣기 학습활동이 전체 학습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7.8%, 52.4%, 34.3%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을 발표해보자’, ‘~을 설명해보자’, ‘~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보자’, ‘~을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해보자’, ‘~에 관하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보자’, ‘~에 대해서 모둠 안에서 질문해보자’와 같이 지리학습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발표하기, 또는 모둠 활동 안에서 토론 및 토의, 조사, 발표하는 말하기듣기 관련 학습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地理A” 교과서 3종의 경우, 전체 학습활동 중 각각 5.1%, 0%, 14.2%의 비율로 말하기듣기 활동이 존재하였다. 특히, “地理A”의 E교과서의 경우, 복수의 검토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듣기 활동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을 설명해보자’, ‘~을 발표해보자’라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언급하는 활동은 존재하지만, 모둠별로 토론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학습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양국의 지리교과서에 있어서 말하기듣기 활동에 관한 학습활동의 수, 등장하는 말하기듣기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의 지리교과서에서는 전체 학습활동의 수, 3가지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과 관련된 학습활동의 수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본 조사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의 정도를 효과크기를 통해 분석한 결과, 말하기 듣기 활동 선호 요소(r=-0.374)는 시각 자료 활동 선호 요소(r=-0.302), 그리기 활동 선호 요소(r=-0.318)의 효과크기 보다 큰 수치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에서 나타난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지표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낸 지표가 말하기듣기 선호 활동이라는 조사 결과와 양국의 교과서 분석에서 드러난 말하기듣기 학습활동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는 서로 관련성을 갖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지리 교육과정과 이에 기반하여 제작되는 교과서에서의 차이는 학습자에게 지리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다. Martin (2008)에 의하면, 학습자의 지리학습은 지금까지의 학습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지리경험과 학교에서 지리교사가 소개한 지리학의 성과를 학습한 경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한다. 또한, 앞선 학교단계에서의 학습자의 교과학습은 그 다음 학교단계의 교과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김선희, 2013) 역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는, 조사 당시 학교에서 지리를 배우거나, 지리를 배운 경험을 갖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조사의 질문지 척도에 답변하기에 앞서 ‘평소 여러분 자신이 지리를 학습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서,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1”에,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6”에 동그라미를 표시해주세요.’라는 설명문을 읽은 후 척도에 답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사의 결과인 양국의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의 3가지 지표인 시각 자료 활동 선호,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 그리기 활동 선호는 학습자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학습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경험에 있어서 학교지리와 관련해서는 지리 학습을 구성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가 배제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차이는 양국의 지리학습자에게 각각 다른 지리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리학습스타일이 학습자가 지리를 학습을 할 때 지속적으로 선호하여 선택하는 배움의 방법 또는 양식이라는 점에서, 지리학습의 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을 연결하는데 있어서 양국의 교육과정이 어떠한 구조를 갖는가, 지리교과서에서의 지리를 학습하는 활동에서 드러난 차이는 양국의 학습자의 지리학습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V. 결론 및 과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학습자를 지리학습자 정보 중 하나인 지리학습스타일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 및 배경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감각·

www.kci.go.kr

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양국의 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은 유의미한 차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지리 학습 경험은 지금까지 학습자가 경험해온 지리 학습 경험에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국의 학교지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의 구성방식과 지리교과서에서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과 관련된 학습활동이 양국의 지리학습자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즉, 학교지리에 있어서 갖는 영향력과 동시에 최소한의 지리학습의 기준으로서 제시되는 지리교육과정의 구조에 있어서 지리 학습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핵심역량이 중심이 되는가, 혹은 지리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되는 형식인가와 같은 구성의 차이가 학습자의 지리학습스타일의 형성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다른 구성을 갖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에서 제시된 학습활동, 특히 시각자료, 말하기듣기, 그리기에 대한 학습 활동의 수 및 내용의 차이 역시 지리학습자의 지리학습스타일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습자의 지리 학습은 학습자가 지리 학습 내용을 배울 때 지리적 지식과 기능이 어떻게 구성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떠한 교재를 통해 배웠는가, 그리고 교재에서의 학습활동은 어떤 것으로 얼마나 제시되고 있는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지리 학습 내용을 학습하는 양국이지만, 어떻게 구성된 지리교육과정과 지리교과서를 통해 학습하는 가에 따라 학습자의 지리 학습 경험은 다르게 축적되어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로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학습자의 지리학습스타일의 차이에 대해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차이를 분석하는데 그쳤다. 추후 포커스 인터뷰 등 양국의 지리학습자 및 지리교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지리학습스타일의 차이의 영향을 미치는 배경(예를 들면,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며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의 조사를 흔쾌히 허락해주신, 고등학생들과 담당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 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本研究の調査にご協力して頂いた、生徒、先生の皆様に深く御礼を申し上げます。改めて、誠に有難う御座いました。).

주

1)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 척도는 첫째, 감각·지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학습스타일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ヤン, 2019, 42.), 둘째, 지리학습에 사용되는 수업방법과 자료(Roberts, 2013, 52), 셋째, 한국(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제2012-14호[별책 7]))과 일본의 교육과정(平成20·21年度版学習指導要領(平成26年1月一部改訂))과 그 해설 및 교과서의 내용 나아가 IGU-CGE(1992)의 국제 지리교육 헌장 중 'Content and Concepts of Geographical Education(지리교육의 내용과 개념)'의 3가지 구조 기반으로 한 문항 상세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44개의 문항을 작성, 이를 한국과 일본의 고등학생(n=194)을 대상으로 척도 작성 개발 조사를 실시하였다(2019년 8, 9월). 조사 결과의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6.0 Program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자료인가를 KMO와 Bartlett의 검정 통계값(KMO값 = 0.81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값 : 2392.951(df=496, p <.01))을 통해 확인 한 후, 요인분석(알파요인법, 프로맥스 회전)을 진행한 결과, 스크리 도표의 확 인과 더불어 초기 고유치의 감소상황(요인 I: 8.063, 요인 II: 5.590, 요인 III: .611, 요인 IV: .113)을 통한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요인이 추출되었다. 나아가, 3가지 요인으로 작성된 척도(모델)의 구인타당도 및 적합도 확인을 위해 IBM SPSS AMOS 25 Graphic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척도의 3요인 사교모델 적합도가 높음(AGFI = .902, CFI=.965, RMSEA = .051)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요인이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인가를 알 수 있는 구조적인 검증(Messick, 1995)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에 있어서도 3개 요인의 Cronbach α지수를 산출한 결과, 요인 I은 α = .823, 요인 II는 α = .801, 요인 III은 α = .743로 나타나, 문항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가 높은 것(.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척도의 각 요인은 각각의 요인별 문항의 특징 및 패턴을 고려한 결과, 시각자료 활동 선호(요인 I), 말하기듣기 활동 선호(요인 II), 그리기 활동 선호(요인 III)으로 명명되었다(양자연, 2020).

2)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츠쿠바대학 인간계 연구윤리 위원회의 승인(課題番号:筑2019-168A)을 얻어 실시되었다.

3) Mann-Whitney의 U검정(비모수 검정)의 효과크기 r은 0.50이상

www.kci.go.kr

은 큰 정도(large), 0.30은 중간 정도(medium), 0.10이하는 작은 정도(small)로 판단할 수 있다(Cohen, 1988; 水本·武内, 2008; Tabachnick and Fidell, 2014).

4) 본 조사의 대상이 된 일본 학습자들에게 적용된 2009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의 다음 개정을 통해 적용된 2017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고등학교는 2018년 개정)은 내용항목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지리적으로 보는법·사고하는 법(地理的な見方·考え方)'이라는 지리교육에서 기를 수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개정됨으로써 보다 자질·능력(역량)이 중시된 학습지도요령으로 개정되었다(井田, 2018). 특히, 이러한 방향성으로 개정된 2017, 18 학습지도요령은 새로운 고등학교 필수이수 과목 "지리종합(地理総合)"과 새로운 선택과목 "지리탐구(地理探究)"에 반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지리종합" 과목을 필수 이수 및 "지리탐구"를 선택하여 학습한 일본의 고등학생과 한국의 고등학생 사이의 감각·지각적 지리학습스타일에 있어서 그 차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8,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의 일부개정)).

김민성, 2011, "지리교육 연구에서의 양적 방법론: 효과 크기의 개념과 활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9(2), 205-220.

김민정·이자원, 2013, "영토 교육에 관한 지리교과서의 비교 연구", 응용지리, 30, 101-121.

김선희, 2013, "수학 학습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대한 다각적 분석", 학교수학, 15(1), 61-75.

김은정, 2000, "학습양식의 유형 및 구성요소와 교육과정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재춘·박소영, 2007,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방식 비교 연구- 한국, 일본,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비교교육연구, 17(2), 157-184.

김현미·조철기·이준혁, 2015, "사회과 핵심역량 선정, 의미 상세화 및 위계화",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3(2), 45-59.

남경희, 2009, "한·일 중학교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4(2), 79-97.

박용조·정호범·신범식, 2007, "초등 사회과 현장 수업의 한·일 비교 분석을 통한 사회과 수업 방법의 혁신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14(4), 183-212.

사희영, 2017, "태평양전쟁말기 한·일「地理」교과서 비교 고찰 - 朝鮮總督府『初等地理』와 文部省『初等科地理』를 중심으로 -", 일어일문학, 76, 319-336.

서찬기·이상선, 1995, "韓國, 日本, 臺灣의 高等學校 地理 學習槪念의 比較分析", 地理敎育, 8, 1-22.

송인주, 2000, "한·일 양국의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비교연구-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33, 245-282.

諏訪哲郎, 2008, "한·일·중 의무교육단계에 있어서의 세계지리 교육", 사회과교육연구, 15(2), 147-168.

심광택·동옥지·김현진, 2019, "한국·중국·일본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의 개발 동향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7(1), 29-52.

심정보, 2020, "한일 사회과 예비 교사들의 상대국 이미지와 독도 인식의 비교 분석",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8(1), 49-64.

양병일, 2016, "한국과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저출산·고령화 교육", 사회과교육, 55(3), 59-74.

양원택, 1996, "한 일 고등학교 세계지리 교과서 내용 비교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2), 75-92.

양자연, 2020, "감각·지각적 요소를 중심으로 한 "지리학습스타일" 척도 작성", 한국지리학회지, 9(1), 37-49.

윤옥경, 2013, "지도그리기 활동을 통한 지도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 지도그리기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한국지도학회지, 13(2), 23-36.

이종일·정호범·고영호, 2004, "외국 초등 사회과 교과서 구성체제 분석 - 미국·일본·프랑스 교과서를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1(1), 153-195.

이하나·조철기, 2011, "한·일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3), 332-347.

장양이, 2021, "한·일 중학교 사회과 지리 영역의 도시 내용 비교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4(2), 189-202.

조성욱, 2006, "지리교육에서 학습자 접근의 방향 모색",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2), 135-146.

조철기, 2008, "일본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담론 분석", 대한지리학회지, 43(4), 655-679.

조철기, 2009, "한일 고등학교 지리 텍스트에 나타난 공간 및 이미지 담론 분석을 통한 비판교육학의 적용", 사회이론, 35, 207-243, 249-250.

주경식, 2006, "한·일 대학생들의 세계 지리 지식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4(2), 95-107.

주웅영·정용교, 2014, "한·일 초등학교의 운영 시스템과 사회과 교실수업과의 관련성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21(4), 89-108.

천호성, 2011, "한·일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 비교 연구: 초등학교 사회과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1), 137-156.

www.kci.go.kr

한춘희·이정희, 2013, “한일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비교 연구”, 사회과교육, 52(2), 173-191.

井田仁康, 2018, “地理教育を支えるための体制の整備”, *科学*, 88(2), 171-174.

金玹辰·梁炳逸, 2009, “韓国の高校生·大学生の地理的認識に関する一考察--日本との比較を通して”, *新地理*, 57(2), 29-43.

辰野千寿, 1989, *学習スタイルを生かす先生*, 図書文化.

水本薫·武内理, 2008, “研究論文における効果量の報告のために-基礎的概念と注意点-”, *英語教育研究*, 31(2008), 57-66.

文部科学省, 2009, *高等学校学習指導要領*, 東山書房.

ヤン·ジャヨン, 2019, “地理学習に対する理解を促す『学習スタイル』の応用可能性―生徒一人ひとりのプライベートジオグラフィー形成に焦点を当てて―”, *新地理*, 67(3), 36-45.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ural sciences(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 NJ: Hillsdale.

Felder, R. M., 1993, “Reaching the second tier: learning and teaching styles in College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College Science Teaching*, 22(5), 286-290.

Fien, J., 1983, Humanistic geography, in J. Huckle(Ed.), *Geographical Education: Reflection and A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UK: Oxford, 43-55.

Healey, M. and Jenkins, A., 2000, “Kolb’s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and Its Application in Geography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Geography*, 99(5), 185-195.

Healey, M., Kneale, P. and Bradbeer, J., 2005, “Learning styles among geography undergraduat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Area*, 37(1), 30-42.

IGU-CGE, 1992, *International Charter on Geographical Education,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Commission on Geographical Education (https://www.igu-cge.org/wp-content/uploads/2018/02/1.-English.pdf 2022년 11월 22일 접속).

IGU-CGE, 2015, *International declaration on research in geography education*,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Commission on Geographical Education (https://www.igu-cge.org/wp-content/uploads/2018/02/International-Declaration-on-Research-in-Geography-Education-FULL-DOCUMENT-JUNE-2015.pdf 2022년 11월 22일 접속).

IGU-CGE, 2016, *2016 International Charter on Geographical Education*,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Commission on Geographical Education (https://www.igu-cge.org/wp-content/uploads/2019/03/IGU_2016_eng_ver25Feb2019.pdf, 2022년 11월 22일 접속).

Kolb, D.A and Kolb, A.Y., 2013, *The Kolb Learning Style Inventory 4.0: Guide to Theory, Psychometrics, Research & Applications*, Experience Based Learning Systems Inc.

Martin, F., 2008, “Ethnogeography: towards liberatory geography education”, *Children’s Geographies*, 6(4), 437-450.

Messick, S., 1995, “Validity of psychological assessment”, *American Psychologist*, 50(9), 741-749.

Roberts, M., 2013, *Geography through Enquiry*, Geographical Association, U.K.: Sheffield.

Tabachnick, B. G. and Fidell, L. S., 2014,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Pearson, MA: Boston.

접 수 일 : 2022. 10. 27
수 정 일 : 2022. 11. 25
게재확정일 : 2022. 11. 25

교신: 양자연, 305-8572, 일본 이바라키현 츠쿠바시 텐노우다이 1-1-1, 츠쿠바대학교 인간종합과학연구과 박사과정(homogeographicus@gmail.com)

Correspondence: Ja Yeon Yang, homogeographicus@gmail.com

www.kci.go.kr